

# 울릉도 한눈에 보기!

# Observatory Ulleungdo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여행지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전망대,  
울릉도에서도 즐겨보자. 노을이 지는 풍경을 담아갈 수 있는 울릉 서쪽 전망대를 소개한다.  
가파른 오르막길의 끝에는 황홀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으니 느리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보길 추천한다.

글 임나경 사진 오철민

## 떠나자, 전망대 탐방

### 석포일출일몰전망대

울릉도 북면 끝에 있는 석포일출일몰전망대는 송곳산을 두르고 있는 울릉도의 북쪽 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안용복기념관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전망대로 향하는 입구를 찾을 수 있다. 가벼운 트레킹을 하는 기분으로 산길을 오르다보면 곳곳에 설치된 전망 데크가 눈에 띈다. 소나무 아래 설치된 간이 전망대에 서만 봐도 관음도와 죽도의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숲속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잠시 쉬며 다시 신발 끈을 짚고 묶고 걷다보면 넓은 잔디밭과 2층으로 된 목조 전망대인 석포일출일몰전망대에 다다른다. 가슴이 뻥뚫리는 장엄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일출과 일몰 모두 아름답다워 사진작가들도 자주 찾는 명소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러일전쟁의 유적지이기도 하다. 1905년 러일전쟁을 위해 일본해군이 설치한 망루로, 일본이 동해에 출몰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했던 곳이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동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해전을 치렀던 역사를 잊기 위해 이곳에는 당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 현포전망대

북면의 풍경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감상하길 원한다면 현포전망대를 추천한다. 울릉순환도로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이곳에서는 현포항과 노인봉, 뒤로 솟은 송곳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2층 팔각정과 벤치와 나무 데크 역시 잘 갖춰져 있어 뚜벅이와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한다. 현포전망대에서는 바다에 우뚝 서있는 코끼리바위를 닮은 ‘코끼리바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오밀조밀 모여 있는 항구 마을의 풍경도 인상적이다. 서쪽으로는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대풍감 해안이 펼쳐져 있다. 서쪽 바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해질녘 노을도 놓칠 수 없다.

‘현포’라는 지명은 동쪽 촛대바위의 그림자가 바다에 비칠 때 바닷물이 검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전망대에서 내려가 현포항에서 바다를 보면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다. 현포전망대에는 코끼리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 울릉도만의 독특한 풍경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자.

### 남서일몰전망대

울릉도 일몰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남서일몰전망대는 우산국박물관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된다. 산세를 따라 느리게 오르는 모노레일에서 보는 산 아래 경치도 좋다. 푸른 하늘과 비파산이 품고 있는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잠시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도착지에 다다른다. 물론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산책로도 있으니 취향과 상황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모노레일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전망대 입구를 알리는 정자가 나온다. 이곳을 통과하면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바다가 보이는 남서일몰전망대 도착이다. 이곳에서는 유리로 된 바닥과 동그랗게 뚫린 전망대를 통해 발 아래 풍경을 볼 수 있어 재미가 배가 된다. 전망대 오른쪽으로는 ‘울릉도 그랜드캐니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태구미해안 절벽의 절경이 보인다. 바로 아래는 소원을 빌면 자식을 볼 수 있다는 전설이 우산국 시절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남근 바위가 있어 볼거리를 더한다. 남서일몰전망대에서 천천히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 천부일몰전망대

천부항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면 산 중턱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다. 둥근 회색 건물 벽면에 구멍이 송송 나있는 천부일몰전망대이다. 북면 보건지소와 북면 파출소 맞은편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그늘 아래 쉼터가 나온다.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천부방과제와 천부해수풀장의 풍경을 눈에 담고 다시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보자. 멀지 않은 곳에서 산 아래에서 봤던 ‘시선 강탈’ 건물을 마주할 수 있다. 천부일몰전망탑 안쪽 벽면엔 울릉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있다. 군데군데 큼지막하게 뚫린 구멍들로는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사진과 풍경이 어우러지는 신비한 모습에 계단을 오르는 일도 크게 힘들지 않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송곳산과 코끼리바위, 아래로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중전망대인 천부해중전망대도 볼 수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인 천부항의 일상적인 모습도 일몰과 더해져 더욱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